벤츠 GLA 게 섰거라…볼보·재규어·BMW 도전장

〈올해 전반기 수입 소형SUV 최강〉

반자율주행 볼보 XC40, 하반기 판매 1위 목표
재규어 E-PACE, 디자인도 성능도 스포츠카급
BMW X2, 쿠페+SUV 장점 그대로 살린 역동성

수입 소형SU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벤츠 GLA가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지금은 재규어 E페이스, 볼보 XC40, BMW 2시리즈 등 만만치 않은 경쟁 모델이 속속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반기 수입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소형 SUV 세그먼트에 도전장을 내민 신흥 강자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반자율주행기능 기본 장착, 볼보 XC40

하반기 수입 소형 SUV 시장에서 먼저 주목할 모델은 볼보 XC40이다. 상위 모델인 XC60과 XC90의 성공은 XC40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고, 이어 국내 출시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했다. 26일 베일을 벗은 XC40은 462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과 전 트림에 볼보의 최신 반자율주행기능 기본 적용이라는 파격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하반기 판매 목표는 1500대로 벤츠 GLA의 상반기 판매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볼보 XC40에는 최신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리터 4기통 T4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균형잡힌 성능을 발휘한다.

●스포츠카에 가까운 SUV, 재규어 E-PACE

재규어 E-PACE의 최대 강점은 SUV를 가장 스포츠카에 가깝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성능까지 구현했다는 점이다. 재규어의 고성능 스포츠카 F-TYPE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통해 가만히 서 있어도 시각적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역동성을 구현했다. 실내 역시 F-TYPE과 동일한 그랩 핸들과 중앙 콘솔 디자인을 적용해 스포츠카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다.

성능도 뛰어나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워즈오토(WardsAuto)가 '2018 10대 베스트 엔진'으로 선정한 2.0리터 터보차저 4기통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최고출력 249마력, 최대토크 37.2kg.m의 넉넉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최대 토크가 아주 낮은 RPM 영역인 1300RPM에서 시작해 4500RPM까지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도 압도적인 가속 성능을 발휘한다. 가격은 P250 모델의 경우 5520만원부터.

●쿠페와 SUV의 장점만 흡수, BMW X2

BMW는 올해 하반기에 쿠페와 SUV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인 X2를 출격시킬 예정이다. 6월 부산 모터쇼를 통해 뉴 X2 xDrive20d M 스포츠 패키지를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X2는 BMW 키드니 그릴의 위아래를 뒤집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을 최초로 채택했으며, 키드니 그릴을 헤드라이트 보다 아래로 배치해 BMW 특유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X2 xDrive20d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7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M 스포츠 서스펜션도 기본 장착된다. 덕분에 더욱 단단한 스프링 및 댐퍼 세팅과 더 낮은 차체 높이를 지녀 펀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가격은 미정.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볼보 XC40, 재규어 E-PACE, BMW X2(사진 위에서 아래로) 등 소형 SUV 왕좌를 노리는 쟁쟁한 신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E-PACE는 스포츠카를 닮은 역동적 디자인, XC40은 첨단 반자율주행 기능, X2는 M스포츠패키지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강점이다. 사진제공 | 볼보, 재규어, BMW

쉐보레, 이달 최대 290만원 할인

쉐보레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7월 한 달간 주력 차종을 대폭 할인하고, 60개월 무이자 할부도 실시한다. 인기 차종인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의 경우 가격을 최대 100만원 인하한다. 올 뉴 말리부는 지난해 국내 중형차 가솔린 부문 1위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판매가격 인하에 재고차량 유류비 지원 및 쉐보레 재구매 추가 혜택(최대 190만원)까지 포함하면 말리부를 최대 29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쉐보레 콤보 할부 및 쉐보레 재구매 추가 혜택을 통해 구매하면 트랙스 250만원, 스파크 90만원, 이쿼녹스 7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크루즈와 임팔라, 트랙스, 캡티바에는 60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현대차-국립공원관리공단 MOU

현대자동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전기버스 일렉시티 시범 운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기버스 일렉시티 1대를 관광객 셔틀용으로 제공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버스를 11월까지 치악산, 내장산 등 전국 4개 국립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약 한 달씩 운영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친환경 전기버스 체험 기회 제공하고, 친환경차 보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36개월 나눠서 내는 슬림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쇄도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애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있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체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애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천휴게소 상하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 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한해 1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 저리 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